

군산시-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포럼 개최

군산시는 7일 지역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1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의 성과평가, 제2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계획수립에 필요한 혁신과제 도출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시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주최·주관했으며, 시와 전라북도 먹거리위원회, 로컬푸드·학교급식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 푸드플랜의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왜, 무엇을 위



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가(지역파트너플러스 장천섭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와 △군산시 1기 지역 먹거리 정책 성과 평가 및 2기 혁신과제(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에 대한 현황발표를 통해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고, 군산시 제2기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추진 주체의 실천과제 등을 모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영삼 센터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각 분야에서 6인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해 군산시 계층별 먹거리 보장 강화 방안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방안 등 먹거리 정책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먹거리 정책 포럼으로 먹거리 관련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먹거리 흐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군산시 미래먹거리 생태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군산시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갑곤 기자

전민일보

2023년 11월 08일 수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포럼

군산시가 7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의 성과평가와 제2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계획수립에 필요한 혁신과제 도출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포럼은 시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최·주관으로

전북도 먹거리위원회, 로컬푸드·학교급식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 푸드플랜의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주제발

표·현황발표를 통해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고, 군산시 제2기 푸드플랜 정책 방향과 추진 주체의 실천과제 등을 모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각 분야에서 6인의 지정토론자가 참석해 군산시 계층별 먹거리 보장 강화 방안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방안 등 먹거리 정책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포럼

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혁신과제 도출 등

군산시는 7일 지역먹거리 선순환 정책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1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의 성과평가, 제2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 계획수립에 필요한 혁신과제 도출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시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주최·주관했으며, 시와 전라북도 먹거리위원회, 로컬푸드·학교급식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 푸드플랜의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고, 군산시 제2기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추진주체의 실천과제 등을 모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나영삼 센터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각 분야에서 6인의 지정 토론자가 참여해 군산시 계층별 먹거리 보장 강화 방안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방안 등 먹거리 정책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낙현 기자